

제2호

발행일: 서기 2010년 9월 13일(월)
창간일: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043) 218-2158
F A X: (043) 212-2158
H . P: 016-482-3158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報

발행인: 김 영 만
편집인: 김 태 문
발행처: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2-3
인쇄인: 김 성 희

우리는 한핏줄 조상에 보답해야

회장인사



안렴사공파종회장 김 영 만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기압저하와 비도 자주와 근래에 드문 기상이변인것 같습니다.

우리 종회보가 창간되고 두 번째호를 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종회보가 하나하나 쌓이다보면 우리들의 역사가 되고 후손들의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안동김씨안렴사공파수도권총친회가 태릉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단합하여 무척한 송조사상과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있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무실 마련을 위해 10억 목표를 세우고 임원진들이 솔선하여 많은 성금을 내거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어 수도권총친회의 회관이 건립된다면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사무국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북 단양의 도라산 밑에 공덕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1950년대 보살 김경님이 십리산길을 기와장과 자재를 밤낮으로 날라 지은 것으로 유명

합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큰절을 지었는데 건장한 우리 종인들이 회관건립을 못 할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 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즈음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고 모두 도시로 나가 이농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을 떠난 후손들의 정신적 안식처이고 송조사상의 본거지가 되도록 종친회회관을 건립하는데 모든 종인이 참여합시다.

지난7월 포석 정지용문학제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길시의 "한글독서사"라는 도서관에 간일이 있는데 주인 김재권선생이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한글의 보급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동김씨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도 반가워 양손을 잡고 한동안 위로와 정담을 나눈일이 있는데 이국만리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종친간의 끈끈한 정을 느낀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종인 여러분! 우리는 한핏줄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오손에 있게하신 선조님들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 올리는 시향(歲一祀)에 참여하고 종친간 친목도모와 조상의 위업을 현양하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조상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10. 9. .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김영만 올림

時 祭 日 程 表

Table with 4 columns: 시제대상 (祭名), 시제일 (祭日), 장소 (祭所), 연락처 (連絡處). Lists various ancestral rites and their details.

안렴사공파종회 각종성금 입금계좌 안내

안렴사공파종회에 각종성금 찬조금, 회보협찬금 납입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239-7308-0
예금주: 김태문(안렴사공)

회보 원고접수

보낼 곳: 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2-3
TEL: (043) 218-2158
FAX: (043) 212-2158

회보의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내용은 선조에 대한 것이면 더욱 좋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평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협찬하실분 연락 주시면 성심껏도와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대연, 재홍, 재성, 성희, 주희, 홍식

안렴사공파종회보 창간호 발간 고유제



파종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 11시 정각 永慕齋에서 안렴사공파종회보 창간호 발간 고유제를 올렸다.

이날 고유제는 비가오는 관

계로 재실에서 올렸으며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고 헌관은 榮萬파종회장이었고 대축 泰文상임부회장이었다. 이날 고유제에는 대연수석부회장,재홍, 성욱 부회장과 흥희소운공종회장,선희좌담공종회장, 흥식 총무, 재성씨와 태운대종회사무총장이 참석 하였다. 참예원전원은 파종회보가 끊임없이 계속 발행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발행될 종회보의 자료제공과 원고의 교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참봉공 사손(嗣孫) 永植(廣基)이사는 종회보 발간 협찬금으로 일십만원을 보내왔다. 「파종회사무국 제공」

宗報創刊告由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三年歲次庚寅正月乙未朔三十日甲子 十七代孫 榮萬 敢昭告于顯十七代祖考左司諫知製教光祿大夫政堂文學門下侍郎按廉使公 府君

顯十七代祖妣竹溪夫人順興安氏 神位 伏以
今爲 宗報創刊 崇祖敦睦 追慕遺德 山海崇深 持續編纂 後孫顯揚 謹以 清酌脯果 祗薦于仲 虔告謹告

안렴사공파 내판종중 재실

안렴사공파 내판종중 재실이다. 이 재실은 2008년 가을 준공한 것으로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진사공종중에서 세거지에 건평 30여 평에 동기와 지붕으로 건립한 것으로 중의재(忠義齋)란 편액이 달려 있다. 종중에서는 김태홍(안동김씨 대종회 및 안렴사공파 고분이며 안렴사공파수도권총회장, 내판종친회 명회회장), 내판종친회장 김권희가

함을 합쳐 세운것이다. 연기군 동면 내판리는 안렴사공파 진사공(諱 演)자손이 세거하는 곳으로 지금도 많은 종친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중 묘소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관계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림리에 선산을 마련하여 묘원을 조성하고 오는 11월 7일 향사를 겸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내판종중제공」



제3회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정기총회 개최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제3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8일(일요일)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심 서울숲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총회는 2008년 창설된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의 정기총회로서 회원상호간 친목과 수도권총회의 진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용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 회장인사말과 재무보고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태운 수도권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화합단결로 회관 건립 특

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태운 재무부장은 재무보고를 마친후 각 임원의 임원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회관건립 기금확보를 위하여 더 헌승 노력할것을 촉구 하였고 안건 토의시간에 모

든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 처리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총회에 안렴사공파종회에서 태운 상임부회장, 익원공파 만길 사무국장, 제학공파 함용,운철총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수입은 당일회비 55만원 찬조금 150만원 이었다.

지난호 발행 이후 영남 이사가 3백만원 여주 거주 경일씨께서 성금 일백만원을 납부하여 주셨습니다.

「수도권총회 총무 김용주 제공」

◎찬조내역

- 영식이사 기념타올 100매
- 20만원: 안렴사공파종회
- 10만원: 광목, 재웅, 규창, 용원, 영주, 재국, 경희
- 5만원: 봉진,재관,웅희,점동,진희,두희,관목(진천) 사관
- 특별찬조 (冀)만길 사무국장 10만원, (提)함용,운철 각 5만원

永慕齋 마당 확포장

안렴사공파종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영모재 앞마당의 깨지고 갈라진 콘크리트와 마당 앞 공터를 다듬어 확포장 주차

장을 넓혔고 창고 관리사에 싱크대를 설치하였으며 7월 4일에는 묘소 재초작업을 한바 있다. 「파종회 총무제공」

懸板과 扁額

- 현판(懸板)은 나무판에 글씨를 써 건물에 내건 각종 편액과 시문(詩文)을 모두 포함 힘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 편액(扁額)은 건물마다 하나 뿐으로 글씨를 써서 문, 대청, 정자(亭子), 사당(祠堂)같은 곳에 가로로 다는 액자(額子)를 말하며 편(扁)은 문 위에 글자를 쓴다는 뜻이며 액(額)은 건물의 앞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이마에 해당한다.
- 편액에 관련된 고사(故事)로 조나라 명제때 위탄(韋誕)이

능운전(陵雲殿) 완공때 편액을 25척(尺) 높이에 줄을 타고 올라가 매달려 세글자를 다 쓰고 내려와 보니 머리털이 모두 희어 버렸을 정도로 시간이 걸려 그 후부터 나무판에 글씨를 써 내 걸었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오래된 편액
 - 공주마곡사 대웅전 편액 → 신라명필 김생의 글씨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 → 고려 공민왕 글씨

「태운상임부회장 제공」

안렴사공 신도비문 (按廉使公 神道碑文)

梧隱公神道碑頌

家晦說為
聲大貞祖
不名忠銘
變自義碑
清在苗晚
久裔告
尤稱成
明誠實
舉感由
宗慕絲
孰情力
敢遺又
忘訊菲
先曾誠
蹟垂路
更長人
願欲尚

榮沐謹撰十九代孫在玆謹書



서 계셨으니 벼슬이 현림학사 태위평장사를 지내시고 일찍이 몽가득(蒙 哥 篤)을 만류하여 초도에서 사슴사냥을 못하게 금(禁)하고 진도와 탐라를 평정하고 재차일본을 정벌하여 공을 세우고 성절축하시로 원나라에 들어가시니 元帝는 태청궁에 대연을 배설하고 席次를 밝명한 송나라 군신보다 상석에 앉히고 호두 금패를 주니 배신(陪臣)으로서 금부(金符)를 차게된 것은 태위공(太尉公=송렬공)으로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일이다. 이 어른께서 순(恂)을 낳으시니 관산사를 지내고 시호를 문영공(文英公)이라 하였다. 이분께서 영후(永熙)를 낳으시니 좌정승을 지냈으며 백형 영돈과 함께 조직의 난을 평정한으로서 공산에 봉하였다. 고려 충혜왕이 원나라로 잡혀갈 때에 시종하던 百官들이 모두 다라나 숨고 하였으나 홀로 왕을 호위하고 가지않았다. 이 어른께서 천(錢)을 낳으셨는데 지밀직사사를 지냈으니 공에게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사세(四世)가 되신다.

공의 휘는 사림(士廉)이요, 스스로 호를 오문거사(梧隱居士)라고 하였다. 소시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문사에 능하였다. 공민왕 초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안렴사를 지냈으며 정문충공 문주(鄭文忠公 夢周)와 이문정공 색(李文靖公 穰)과 더불어 서로 교유하였으며 모두가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신론(辛訥)이 집권하게 왕과 公卿大夫가 모두 급슬거리며 그에게 기울어 졌다. 14년에 문(聞)에게 벽상삼한 삼중대공 집현전태학사를 봉하고 수정이순 문도성리 보세공신호(守正稷順 論道成理 保世功臣號)

를 주고 왕이 자주 미행(微行)으로 그 집에 나가서 공을 치고 연등회를 개최하고 상으로 은병과 안장 있는 말과 비단과 주단등을 많이 하사하니 공이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폐는 바른사투이 못되며 후일에 반드시 정사를 혼란시키면 고려의 亂穢이 장차 혈식(血食=괴물)은 산 짐승을 제물로 바치어 제사 지낸다는 뜻 血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좌시의 대부 정 추(左司議大夫 鄭 樞)와 좌정언 이존오(左正言 李存高)가 돈의 처사를 말하다가 추는 직위를 감등시켜 등래로 보내고 이존오는 장사김무로 내쫓으니 조정과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떨고 감히 말을 하는자가 없었으나 공만이 홀로 정론을 제기하니 이로부터 감격하다는 名聲 국내에 떨쳤다. 이태조가 왕위를 물려받을을 담하여 공이 마침내 청주로 피신 은거 할새 항상 이태조가 있는 한양을 향하여 앉지않고 매양 스스로 열네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고사를 외었다. 이태조가 공을 사간원 좌사간으로 명하고 누차 불렀으나 끝내 불응하시고 마침내 도산으로 들어 가셔서 글씨 문물 달고 일체 사람을 대하지 않았으며 임종시 여러 아들들을 돌아보시며 유언하시기를 '나는 麗朝의 옛 신하로서 이미 임금을 도와 나라를 보존치 못하고 나라가 망하여도 또 다시 죽지 못하였으니 천하의 죄인이라 무슨 변복으로 지하여 돌아가 선왕과 선조를 뵈울것인가 내가 죽거든 깊은 산중에 파묻고 봉분도 하지말고 표석도 세우지 말고 자손중에서 이미 벼슬한 사람은 다시는 벼슬하지 말라'고 경계하시었다. 때문에 생존시의 문적(文蹟)과 기타사적(其他事蹟) 및 생존임시와 묘소등을 모두 분실하여 전하지 못하고 野

史나 유승(遺承)에 전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것 뿐이다 공이 도라가신제 삼백여년만에 후손이 처음으로 석각중(石塔中)의 지문(誌文)을 얻어서 살펴보니 공의 묘소인지라 지금의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도산 자좌(陶山 子座)의 언덕위에 모셨다. 숙종 4년에 그 고을 유생들이 발의하여 공의 사당을 松寮에 세우고 제사를 지내더니 그후 3년되던 해에 유생 이탁하등 일백이십인이 대궐에 들어가 글을 올려 사원(祠院)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 賜廟하기를 청하니 왕이 관계당국에 명하여 선처하라고 하였으나 마침 조정에 일이 있어서 미처 시행치 못하였다. 공침이 일찍이 고려명신전을 짓는데 길재와 조건과 남윤진과 원천석과 서 건 및 공의 사실을 모아 일민편(逸民篇)에 편입하였는데 재(再)는 문하주서로서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龜山에 들어가 은거하고 건(健)의 이름은 개건변(健)을 뜻하는데 자신이 나라가 망하여도 죽지 못하였으니 개(犬)와 같다고 하여 건(健)자로 이름을 짓고 머리를 가리고 지리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치었고 윤진은 태조와는 짐지시로부터 친구인으로 왕이 된 뒤에 반드시 데려 오고저하여 누차 벼슬을 주고 불렀으나 나가지 않으니 왕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그가 살고 있는 고을을 봉하여 沙川伯을 삼고 천석과 건은 혹은 원주에 살고 혹은 금천에 살더니 당시의 사림들이 망명한 죄로 벌을 주지하니 왕이 이르되 '백이 숙제와 같은 인물이니 사면하고 불문에 부치라'고 하였으며 또 松門講에 講院 약간인을 모아 아울러 부록에 편입하였다. 슬프도다! 고려가 혁명할 때에 절개를 지키고 이름을 이룬 선비가 많았다 그런데 정인지가 사전(史傳)을 지을 때에 모두 빼놓고 올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본의(本意)였는가? 당시의 여러 신하들이 기왕부터 혐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말살시켜 전하지 못하게 한것이니 이래서야 장차 어찌 앞날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장하겠는가? 대체로 슬픈 일이라 지금에 와서 공의

천조 위한 비 늦게야 이루어니
기실은 미려하고 정성이 부족했네
오가는 나그네를 공의 충의성하고
후손들 추모의 정 더욱더 세롭구나
일찍 나린 유은 건 세월 흘렀는데
대의명분 더욱 밝아 오래도록 전하누나
후손들 어찌 감히 선세사적 잊을 손가
다시금 원하노니 기문명성 변함없네,

오직 김씨(金氏)는 박씨와 석씨의 뒤를 계승하여 서라벌(徐羅)에서 왕이 됨으로부터 三十八世를 전하여 경순왕(敬順王)에 이르자 나라를 고려(高麗)에 이양(移讓)하고 그 자손은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되니 관계출신(官界出身)도 많고 명성과 덕망이 높은 대족으로서 그중 상락하산(上洛何山=안동고호)에 살고 있는 자는 그 보계(譜系)가 가장 오래되었고 또 현달하였다. 공의 선대에서부터 상락에 살았음으로 후세에 와서 화산인(何山人)이라고 일컬었다. 고려 고종때에 방경(方慶)어른께

후손 임(僕)과 향도(亨道)와 서림(瑞霖)이 찾아와 비명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기에 공철이 이에 여러 선생의 사적을 말미에 실리어 써지 않고 오래 전하고자 하니 이 글을 읽는 자는 비를 가라켜 사기라고도 할것이고 道理도 명확하다고 이물것이다. 공이 순흥안씨의 정당분화 순성군 원승(元昇)의 따님과 결혼하여 5남녀를 두시니 장남은 안렴사 간(侃)이요 이남은 정량 위(諱)요 삼남은 절도사 제(濟)요 사남은 소윤 약(濶)이요 오남은 좌랑 식(澁)이요 女는 목사 마희원(馬希

遠)에게로 출가 하였다. 소윤공은 1남을 두었는데 휘(諱)는 우주(遇)요 지주사 비술을 지냈고 좌랑공은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자래(自隸)요 직장 비술을 지냈고 차남은 자형(自荊)이니 서림을 지냈다. 그 자손이 지금까지 十七,八세를 내려왔다. 명문(銘文)에 하였으니 과감하고 감직한 태위공(太尉公)이시여 공이크고 높으시도다. 탐라를 평정하고 일본을 兩次 정벌하여 이릉은 중국까지 떨치고 금패(金牌)는 번쩍 거렸도다. 공이 그 뒤를 이어서 소년에 등과하여 간악한 신문을

배격함에 있어 언사가 엄숙하고 의리가 분명하였으며 이태조가 등극함에 호걸이 구름같이 따르되 공과 친한 동지는 정 분충공(鄭 文忠公)이었던니 분충공은 이미 순절하고 공은 산중에 붙었도다. 나는 감명한 신하로서 정성을 전왕에 바칠뿐이었던도다. 옥새 찍은 친서로 여러번 불러도 공의 뜻은 더욱 굳으니 은나라에 삼인(三人=箕子, 箕子, 比干)이 있어서 주나라의 광채를 빛낸과 같도다. 삼당 언덕에 사적(四尺)높이 무덤이 있으니 풍분도 말고 표석도 세우지 말라 한것은 스스로

그 자취를 김추려 한이니 나라사람들의 사모하는 마음은 어찌 국(國)함이 있으리오 거북 비탈과 용머리 비석에 묘문에 새겨있으니 여러 강호 제현께서는 이 명언(銘言=碑文)을 경건히 하소서.

가신대부 예조참판 등지 경연 실록사 성균관대사성 규장각각제학 지제교(嘉善大夫 禮曹參判 同知 經筵講學 成均館大司成 奎 閣閣直學 知制誥)

외에(外裔) 남공철(南公徹) 撰

松泉書院 春季 祭享 奉行



분중 후손등 100여 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송천서원 대제의 진행은

송천서원 제향이 지난 5월 3일(음 3월 20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현장에서 배향

(谷山人) 유도회충북본부회장의 지휘아래 李柄善(全州人)의 집례로 봉행된 대제는 초헌관

俞赫穆(杞溪人) 청주향교전교가 아헌관에 金錫泰(金海人) 대한유도회청주지부장, 종헌관에 朴鍾武(順天人)이었으며 泰文 대종회이사(안렴사공과부회장)가 송천서원도유사로 萬者를 담당하였고 대축 申元植 僑林會장이 맡았다 이날 우리분 중에서는 20여명의 종친이 참제 하였다. 송천서원은 1708년(숙종34,戊子) 청주 서쪽 송천에 사우를 건립하고 안렴사공(諱 士廉)을 주벽으로 7賢을 추배함으로써 3차에 걸쳐 8현을 추배함으로써 15현을 배향하게 되었다. 1871년(고종8년)정령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가 1973년(癸丑)에 충청북도 유도회

주관으로 현 위치인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목령에 서원을 복설하고 매년음력 3월 20일에 원향(院享)을 받들고 있다. 송천서원의 배향위는 主壁 안렴사공을 비롯하여 崔有慶(全州人), 李貞幹(全義人), 朴光佑(尙州人), 李之忠(牛峰人), 趙綱(漢陽人), 李大建(慶州人), 李濟臣(全義人), 李寅燮(慶州人), 崔錫鼎(全州人), 南九萬(宜寧人), 朴文秀(高靈人), 李宗城(慶州人), 李孝碩(全義人), 金汝亮(開城人)이며 청원군의 대표 서원이다.

「泰文송천서원 도유사제공」

자랑스러운 안렴사공 後裔

이화여자대학교 나노과학부 김관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나노과학부 김관목(영인파종회장장남) 교수팀은 “(주)아이노텍스와 공동으로 아이노산 대량 생산을 위한 시험생산에 성공하였다”고 지난 상반기에 발표 하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이노산은 항생제, 호르몬, 각종원료 의약품, 캠퍼트와약품 등에 골고루 쓰이는데 의학용 아이노산과 살충제용 아이노산을 구별하는 것이 과제였으나 이반에 성공한 대량생산 기술은 의약품용 아이노산과 살충제용 아이노산을 구별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아이노산의 세계적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조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며 아이노텍스 중앙연구소 원홍식 소장은 “산업적 대량 생산의 기준이

되는 하루 250g 월 6의 아이노산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국내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2007년 유가촉매를 활용한 D-아이노산 합성을 세계 최초로 개발 과학자전 사이언스 미국 학회지 JACS에 발표한바 있고 유가촉매 합성법이 기존 효소법보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집중 연구한 결과 효소법의 경우 열(熱)과 산(酸) 변화에 불안정한 특성 때문에 고급기술이 필요하고 환경오염에 있어 유가촉매를 통한 D-아이노산 합성법이 기존 합성법 보다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서 우위에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지난해 1월 밝혔다. 김교수는 “유가촉매 합성법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전체 아이노산중 80% 이상에 적용이 가능해 효소법에 비해 기술 적용 범위가 크고 합성방법이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라

고 한다. 김교수에 따르면 기존 효소법의 경우 생산원가가 Kg당 40~50달러 수준이지만 유가촉매를 활용하면 3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며 D-아이노산은 한미더로 고부가가치형 특수 아이노산으로 지금까지 일본,미국,유럽을 선진국 메이커들이 독점생산 해 왔다. D-아이노산의 하나인 D-아소류산의 경우 g당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2006년~2012년 D-아이노산 시장은 1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한다. 아이노산은 우리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한다. 자연생태에서는 20여종의 아이노산이 존재하고 각종 인공합성 아이노산은 수백개의 종류가 있다. 하루 빨리 대량 생산된 제품을 활용 인류에 공헌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편집부 공든」

지역의회 의원들



김 봉 회
충북도의회산업경제
위원회 위원장
안렴사공20대손
소피명: 좌랑공
父 名: 道 漢



김 재 풍
충청남도의회 의장
안렴사공19대손
소피명: 좌랑공
父 名: 思 錫



김 순 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안렴사공22대손
소피명: 소윤공
父 名: 鼎 茂